

# 원각사지 정보관리 "속수무책"

## 사적비도 균열...종단·당국 구체적 보존방안 없어 전문가, 사찰복원 보호·박물관에 이전등 주장

정보를 보존할 구체적인 방안은 진정 없는 것인가.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훼손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도 정보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종단과 문화재 관리국, 어느 곳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보호대책을 강구중" "전국민의 각성 촉구" 등의 의례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정보보호에 깊은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원각사지 10층석탑뿐 아니라 탑골공원내 위치한 보물 3호 원각사 사적비 또한 비면에 여가져기 균열이 생기고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고 비면의 글씨가 희미해 지는 등 심각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29일 원각사 사적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고윤환 스님(원각사 복원추진회 지도부)은 "관리 소홀로 10층석탑과 마찬가지로 사적비 또한 붕괴될 위험이 크다"며 관리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원각사지 사적비 역시 비면에 심한 균열을 보이는 등 방치되어 훼손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관리국 역시 최근 "원각사 10층석탑이 노천에서 5백여년간 보존해 온 관계로 석재표면의 균열·박락 등의 현상이 극심한 실정이나, 탑의 구조상 위험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석재 표면의 과학적 보존처리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한·일간의 석조문화재 보존에 대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 기술개발 추진중이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 장·단기 보호대책을 강구중이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 전문가들은 공원이라는 노천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계속 방치되는 한 원각사지 석탑과 사적비의 훼손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공원내 원각사를 복원 불교에서 관리 보존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지난 92년 10층석탑에 대한 정밀실측 보고서가 만들어진 만큼 모형을 이교도의 고의파손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훼손방지 및 보존에 대해 종단은 별 특별한 대책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



원각사지 사적비 역시 비면에 심한 균열을 보이는 등 방치되어 있어 훼손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화재연구소(소장) 등 전문가들은 "탑골공원내 석탑이 위치한 부분이라도 땅을 불하받아 원각사를 복원해 종단에서 24시간 내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종단에서 관리를 맡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지난 1일 성명을 발표 "국보 및 보물,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를 불교계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 장보고 목상얼굴 찾았다

## 사후 1150년만에 ... 일본 삼정사서

신라시대 동북해 해상 무역의 왕자였으며 법화행자로 알려진 장보고 (?~846)의 모습 이 목상(木像)으로 사후 1천1백50년만에 밝혀졌다. 장보고의 목상은 일본 경도 삼정사(三井寺)내에 모셔져 있던 것으로 그의 생전시 일본 승려 엔닌(圓仁)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찰에서 장보고의 목상을 해산 전과 중이를 지켜 주는 바다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국내에 전해지는 장보고의 영정은 역사적 고증이 없이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목상은 장보고 생전 당시 그와 접촉했던 승려가 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국내에 전해지는 장보고의 영정은 역사적 고증이 없이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8세기초 활발했던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해적을 물리치기 위해 1만여명의 민군으로 청해진을 세운 장보고는 말년에 불교에 귀의 법화원을 창건, 제주, 산동성에서 세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장보고의 목상 공개로 그의 업적과 불교사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학술연구의 단초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무역을 장악하고 해적을 물리치기 위해 1만여명의 민군으로 청해진을 세운 장보고는 말년에 불교에 귀의 법화원을 창건, 제주, 산동성에서 세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 개혁회의 백서 발간

## "다시는 종단진통 없어야"

조계종 개혁회의(의장 석주)는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8개월간에 걸친 개혁과정을 정리하고 개혁본사의 의의 및 성과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마련하는 한편 개혁의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 오는 15일경 총무원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개혁본사 토론회는 집행부 범종추 전승현 비구니 학계 언론계 재가신도 등 각계 대표가 참석 △개혁본사의 법제화의 의의 및 성과 △개혁회의 인사 평가 △종단의 민주적 운영 방안 - 재정 증대 행정 사찰관리 포교 교육 등 △차기 집행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 등에 관해 토론한다.

한편 개혁회의는 이달 9일 경 개혁회의의 과정과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 각 사찰 및 강원 신학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계종 제 28대 총무원장 선거 21일 월요일 오후 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입후보자 등록이 있게되며 입후보 자격은 연령 50세 이상 승랍 30년 이상의 법계 2급 이상의 비구로서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 호적증본 수형이력서 각기부 사진 2장 명함 10장과 함께 종책 및 종책개요(200자원고지 10~15매 분량)를 제출해 교계 신문에 발표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21일 월요일 오후 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입후보자 등록이 있게되며 입후보 자격은 연령 50세 이상 승랍 30년 이상의 법계 2급 이상의 비구로서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 호적증본 수형이력서 각기부 사진 2장 명함 10장과 함께 종책 및 종책개요(200자원고지 10~15매 분량)를 제출해 교계 신문에 발표해야 한다.

# 일산·분당등 신도시 포교 비상

## 타종교 비해 사찰 절대 부족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불교의 포교량이 기독교에 비해 훨씬 뒤지고 있어 신도시 지역 포교에 비상이 걸렸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사찰은 법흥사(주지 해종) 1곳인데 교회는 1백여곳으로 드러났다. 일산신도시 지역에는 현재 조계사와 통도사가 각각 부지 마련에 들어가는 등 포교당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종교가 이미 선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불교는 당분간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분당 지역의 경우도 사찰은 통도사 제1본원 연화사와 제2

본원 장안사 등 15개정도인 반면 교회는 2백여곳에 이르고 있어 역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지역 포교일선에 있는 스님들은 신도시 지역에 대한 포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종단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국대생 교수 폭행 학생 2명 제적 처분 동국대학교 선학과교수 원각 스님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경 불교종립대학인 서울 동국대학교 교내 본관 잔디밭 불상앞에서 현각스님이 문과대 양모군 등 술에 취한 7명 학생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었다. 학교측에 따르면 이날 퇴근을 하기위해 불상앞을 지나던 스님이 학생들이 술을 마시며 불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무슨 행동이냐"며 나무라자 학생들이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 학교측은 지난 2일 오전 10시 교무회의를 열고 양모군등

주동자 2명을 제적하고 나머지 5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결정했다. 이상번씨 당선 대불정 18대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제 18대 중앙회장에 현 중앙부회장 이상번씨가 당선됐다. <인터뷰 4면> 지난달 3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제 3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상번 후보는 총 185표중 94표를 획득, 86표를 얻은 진인철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 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자격 등 불청 제반행 정사항을 문제삼은 경남지구측과 이를 이유없다고 주장하는 중앙회측과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총회가 두시간여 지연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 법타스님 집유로 풀려나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이지범씨도 함께 출소



집유로 지난 1일 풀려나 법타스님(오른쪽)과 이지범씨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연의 회(이하 평불회) 회보 '하나로' 11호(5·6월) 기사내용중 김일성저작선집 5권 147쪽 조국 해방전쟁부본 게재와 관련, 지난 7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평불회 부회

장 법타스님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일 출소했다. 한편 이지범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타스님과 함께 풀려났다. 중앙총회 후보 96명 현소·지하스님무투표 당선 지난달 27일 마감된 조계종 직선 중앙총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은 총 96명이고 가장 경쟁이 심한 곳은 제 14교구 범어사로 2명선출에 7명이 지원 3.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용주사 원정사 불국사 선운사 봉선사가 각각 2.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은 해사의 현소·향공스님, 쌍계사 지하·영담스님 고운사의 근일·설송스님 등은 무투표 당선 이 확정됐다. <2일 현재>

#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운명의 책'

한 권의 책이 한 사람과 한 사회와 그리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흔히 한다. 그러나 책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청량제처럼 목만 축이는 그런 책에서 이를 상하게 하는 달콤한 사랑 같은 책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책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간다. 입에 쓴 약처럼 운명의 책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법이다. 삼성에서 기획된 이 세계사상 진검은 문자 그대로 학의 무리에 섞여 있는 한 마리 닭을 가려 읽는 책이다.

李御寧 (전 문화부장관)

30 존재와 무 II

GREAT BOOKS OF THE WORLD

삼성세계사상 GREAT BOOKS OF THE WORLD

- 1 한국의 유학사상 2 노이/중용 서서집주 3 맹자/대학 서서집주 4 노자/장자
- 5 사기열전 6 국가/소크라테스의 변명 7 정치학/시학 8 이슬람 사상 9 군주론/리바이어던
- 10 경제 11 한국의 불교사상 12 방백사설/성찰 외 13 동치론/자유론 14 순수이성비판
- 15 역사철학강의 16 종의 기원 17 진정론 18 정신분석학입문 19 현대의 신화/아이겐티티
- 20 시간과 자유의지/지리우스트리는 이렇게 말한다 21 한국의 민족 종교사상 22 자살론/시비엔코프 23 사회경제사
- 24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민주주의 25 역사의 연구 26 역사의 연구 27 과학과 근대세계/우연과 필연
- 28 건디 저서전/시인의 불복종 29 존재와 무 30 존재와 무 31 한국의 실학사상 32 불의 정신분석/초의 불꽃 외
- 33 1차대전/인간/부정 34 승문 열대 35 황금가지 36 황금가지